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속도 를 줄이면 사람 이 보입니다		배포일시	2021. 6. 16.(수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정호, 사무관 이일보, 주무관 이상화, 조은혜 • ☎ (044) 201-5087, 5081, 5084	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1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6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

- 16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·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백승근, 이하 대광위)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, 로카모빌리티㈜(대표 손민수) 및 (주)디지비유페이(대표 소근)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(수) 체결한다.
-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·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%를 절감할 수 있다.
-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,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*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.

* 수도권·대전·세종·제주, ‘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(티머니社)

- 이에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의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하여,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모빌리티(주)*와 (주)디지비유펜이**를 협력사로 선정(‘21.4)한 바 있다.

* 로카모빌리티 : 인천, 경기, 부산, 울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남 등

** 디지비유펜이 : 대구, 경북 등

-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.

- 전국 137개 시·군·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,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강원도(춘천시)가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·도 전체로 확대되었다.

-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“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, 실물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”이라면서,

- “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이일보 사무관(☎ 044-201-50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확대를 위한

참여기관별 주요 역할

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- 알뜰교통카드 정책 총괄, 관계 법령의 정비, 국고보조금의 교부 등
- 협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에 대한 조정 등

☐ 한국교통안전공단

-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의 산정,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, 전산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-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이용자의 정보 관리, 이용통제 분석 등
-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 전국화를 위한 교통카드 이용 정보 및 대중교통 정류장 정보 연계체계 구축 총괄

☐ 로카모빌리티, 디지비유펀이

-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개발·발급·운영 및 이용혜택 제공, 이용 정보의 관리·보안,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마일리지 지급, 보조금 청구·정산 등
-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 전국화를 위한 교통카드 이용 정보 및 대중교통 정류장 정보 연계체계 구축